

뉴질랜드 대외원조 개관¹⁾

I. 뉴질랜드 원조 개요

1. 뉴질랜드의 원조 목표 및 방향

1) 정책 기조

-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궁극적 목표로 '빈곤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지향'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of poverty) 및 5개년 전략 (the Five Year Strategy/2004, 5~2009, 10)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음.

2) 주요 정책 방향

- 개도국의 빈곤해소
- 신정책체제(New Policy Framework) 및 태평양 지역 전략보고서(Pacific Regional Strategy Papers)의 틀 안에서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와 MDGs의 통합 노력

- 국별 빈곤분석 및 프로그램 전략에 기초한 양자간 원조 실시
-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중점 지원
- 각 개도국의 특이한 상황을 고려, 기초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별 교육전략 개발
- 인권, 성평등 및 환경문제의 주류화
- 뉴질랜드 ODA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한 감시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 등

2.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 현황

- 2004년 NZAID(뉴질랜드 국제개발청)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76%가 대 개도국 원조를 지지하고 있으며 동 지지자 중 61%가 GNI 대비 0.7% 수준으로 원조예산 증액을 하는데 찬성하였음. 그러나 NZAID의 활동 및 실적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30% 정도로 낮은 수준임. 또한

1) 본 내용은 DAC Peer Review(2005)를 요약·정리한 것임.

원조가 테러 및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원조우선 대 상국으로는 태평양지역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조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그 이유로 국내 빈곤층에 대한 우선 지원 및 개도국의 부패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들고 있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원조 사업을 지지하였으나 정부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60%가 의구심을 나타냄.

II. 뉴질랜드 원조 현황

1. 최근 뉴질랜드의 ODA 지원 현황

- 2003년도 ODA 규모 : US\$ 165백만(ODA/GNI 비율 : 0.23%)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DA/GNI 비율 기준으로는 16 위임(DAC 회원국 평균은 0.25%)
- 2003년 원조액은 전년 대비 43백만불(35%) 증가하였으나 장기적 예산규모 확대 추세는 보이

〈뉴질랜드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 백만)

구분	ODA	ODA/GNI
1999년	134	0.27
2000년	113	0.25
2001년	112	0.25
2002년	122	0.22
2003년	165	0.23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4

지 않고 있으며 왕성한 경제성장률에 비해 ODA 증가율은 저조한 편임.

-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적 원조규모 확대 목표는 유엔 권고수준인 ODA/GNI 비율 0.7%이나 현재 구체적 중장기 계획은 부재하며 동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미약한 실정임.

2. 2003년 뉴질랜드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 US\$ 165백만

- 양자간 ODA 규모 : US\$ 129백만(78.18%)
- 다자간 ODA 규모 : US\$ 36백만(21.82%)

- 뉴질랜드는 지정학적 특성상 태평양 지역의 변영과 안정을 위한 평화구축 및 분쟁예방을 위해 취약 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가 지원한 과거의 주요 수원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2002~2003년 이라크에 대한 원조와 최근 남아시

〈2002~2003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지원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 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03년 평균)	총 ODA 대비 점유율 (2002~03 평균)
1	파푸아뉴기니	6.9	4.8%
2	니우	5.9	4.1%
3	이라크	5.8	4.0%
4	토켈라우	5.3	3.7%
5	솔로몬 군도	4.8	3.3%
6	사모아	4.8	3.3%
7	인도네시아	4.6	3.2%
8	바누아투	4.0	2.8%
9	통가	3.7	2.6%
10	룩사임부르크	3.0	2.1%
합계		48.8	33.9%
ODA 총규모		144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및 총 ODA 대비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2-93)	%	국명 (2002-03)	%
1	룩아일랜드	12.6	룩아일랜드	7.6	파푸아뉴기니	4.8
2	니우	7.3	사모아	7.0	니우	4.1
3	인도네시아	7.1	피지	6.8	이라크	4.0
4	사모아	5.6	통가	4.1	토켈라우	3.7
5	피지	4.2	니우	4.0	솔로몬 군도	3.3
6	통가	2.8	파푸아뉴기니	3.4	사모아	3.3
7	파푸아뉴기니	2.8	토켈라우	3.3	인도네시아	3.2
8	토켈라우	1.8	인도네시아	2.8	바누아투	2.8
9	필리핀	1.6	솔로몬 군도	2.6	통가	2.6
10	태국	1.5	바누아투	1.5	룩아일랜드	2.1
		47.3		43.1		33.9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아 쓰나미 긴급재해구호를 위한 예산 배정으로 총 ODA 중 인도적 원조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유상/무상원조 규모

-무상원조(Grants and grant like contribution)
: US\$ 165백만(100%)

-유상원조(Development lending and capital) :
US\$ - (0%)

※ 뉴질랜드의 모든 ODA 예산은 무상원조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3) 지역별 지원 현황

□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 19개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 등에 집중되어 있음.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라크 원조규모의 증대로 최근 중동지역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음.

□ 주요 수원대상국이 주로 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들이나 전체 수원국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상위 20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 비중이 1992~3년 96%에서 1997~8년 86%, 2002~03년 79%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원국 수는 각 66개국, 92개국 및 100개국으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	0.2	0.0
사하라이북 아프리카	0.0	0.0	0.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4	2.1	9.1
북중미	0.1	0.4	0.7
남미	0.1	0.4	1.7
중동	0.0	0.0	6.7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5	0.9	6.0
극동아시아	14.3	12.1	18.5
오세아니아	83.6	83.8	57.3
합계	100	100	100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4)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17.0	29.4	37.4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18.3	13.4	19.6
중저소득국(LMICs)	41.0	41.2	37.2
고중소득국(UMICs)	23.4	15.5	5.7
고소득국(HICs)	-	-	-
MADCT ¹⁾	0.4	0.5	-
합계	100.0	100.0	100.0

주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D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5) 2003년도 분야별 지원 현황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¹⁾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23.8(2.7)
	보건(기초보건)
	5.6(4.2)
	인구
	0.6
	식수 및 위생
	1.0
	정부 및 시민사회
	8.6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7.7
소 계	47.4
경제인프라 ²⁾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1.1
	에너지
	0.6
	기타
	1.9
소 계	3.6
생산(Production)	농업
	2.6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4
	무역 및 관광
	1.2
소 계	4.2
다부문(Multisector)	5.1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8.7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³⁾	-
긴급원조(Emergency aid)	13.2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8.1
기타(Unspecified)	9.8
합 계	100.0

주1) 학생 및 연수생 포함

2) 인구 및 생식보건

3) 비ODA 부채탕감 포함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9

빈곤감소를 위해 사회 및 행정 인프라 부문에 ODA를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음.

〈분야별 지원실적 추이〉

(단위: %)

지원년도	1982~83	2002~03
사회/행정 인프라	22.4	47.8
경제 인프라	27.3	4.0
농업	16.8	2.6
산업/기타생산	3.7	1.8
물자/프로그램지원	24.2	7.4
긴급지원	2.1	12.7
기타	3.5	23.7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8

Ⅲ. 주요 의제별 정책

1. 빈곤감소

1) NZAID(뉴질랜드 국제개발청)의 설립과 빈곤문제의 중점화

2002년 NZAID가 설립되면서 뉴질랜드 ODA 사업의 최대 핵심과제로 빈곤감소가 부각되었고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from poverty’ 및 기타 정책 보고서와 전략 등에서 빈곤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을 명시함.

빈곤감소를 위해 NZAID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과 함께 국가·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정책의 틀을 확립하고 다양한 직·간접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개도국의 교육, 보건, 생계유지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문화적·환경적·경제적 여건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생계의 촉진

- 태평양 연안 개도국에 대한 경제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는 건설하고 역동적인 민간 부문의 장려가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위해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음.
- 빈곤감소를 위해 거시 및 미시적 수준을 포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 정책에는 경제성장, 민간부문강화, 식량안보 및 무역 등의 주요 이슈들이 포함됨.

3) MDGs 달성 노력

- 뉴질랜드의 IDTs(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와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은 정책기조인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of poverty'에 융해되어 있으며 수원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
- 분야별 원조를 하는 NZAID는 원조 목표설정과 효과분석에 MDGs를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MDGs 달성을 위한 ODA의 규모 증가의 국제적 움직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2. 교육부문 지원

- 교육분야는 뉴질랜드의 양자간 ODA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분야로서는 최대 규모임. 그동안 장학금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지원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동료 심사에서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 초·중등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1) 수원국의 교육제도 개선 지원

- NZAID의 교육정책 방향은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지원이며 특히 교육에서의 성평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아래의 4가지 원칙을 교육분야에 대한 우선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음.
 - ① 교육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임.
 - ②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목적임.
 - ③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장과 '만인을 위한 교육' 달성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④ 교육은 빈곤근절, 효과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그리고 기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 최근의 교육분야 지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Sector wide approaches(SWAp)의 틀 속에서 광범위한 교육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임. 새로운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분야 육성을 위한 전략은 있으나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수원국가에 대해서 재정지원, 기술지원, 장학금지원 및 연수를 통한 직접적 원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효과적인 장학금 제도 개발

- 장학금 지원은 NZAID 교육부문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20년간 양자간 ODA의 30%에 달함.
- 장학금 지원 규모 대비 효과에 대해 2001년 장관 심사에서 아래의 비판과 권고사항들이 제기된 바 있음.
 - ① 장학금 지원은 국가 프로그램 전략,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수요 등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시행되어야 함.

- ② 뉴질랜드 자국 초청 교육보다는 수원국 내 혹은 지역내 연수프로그램 실시 및 장학금 지원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임.
- ③ 거래비용절감 및 효과 증대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 of procedures), 수원국과의 조화(Harmonisation) 및 수원국 정부의 노력과의 일치(Alignment)가 중요함.
- 최근까지 7개의 장학프로그램 및 시상프로그램이 있었으나 3개는 폐쇄되었음. 이는 성과의 부진 및 목표한 개발 결과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임.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뉴질랜드 개발장학제도 및 뉴질랜드 지역개발장학제도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음.

3. 취약국가 지원

- 평화와 안보는 뉴질랜드가 지원하고 있는 수원국의 발전의 기반이 되나 태평양 연안 다수의 국가들에서 분쟁과 불안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푸아뉴기니의 내전, 솔로몬 군도에서의 정부붕괴, 피지의 쿠데타 및 바누아투의 증가되는 정치적 불안정 징후 등이 그 예임.
- NZAID는 취약국가의 분쟁예방 및 평화재건을 위해서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거버넌스 지원과 인권존중, 성평등 이슈 해결, 사회 각 계층의 참여, 기초 사회 서비스의 개선, 경제개발 촉진 등
- 지역의 분쟁 예방 역량 강화와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리더십 강화, 여성 존중, 청소년 교육,

HIV/AIDS 예방, 지역사회 정보 제공, 법치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IV. 원조 기관, 인력 및 관리 체계

1. 원조 실시 체계

- 1) NZAID(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창설
-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2000년 동료심사에서 당시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총괄하고 있던 뉴질랜드 ODA 정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 ① 지나치게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와 전략적 집중의 부재
 - ② 외교통상부의 단기 순환 보직에 따른 원조 전문가 육성의 어려움.
- 이에 정부는 2001년 빈곤감소에 초점을 두고 ODA 프로그램 전반을 재검토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2년 외교통상부 산하 준독립기관으로 NZAID(뉴질랜드 국제개발청)가 창설됨.
- 외교정책 전반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나 ODA 관련 사항들은 외교통상부 차관이 직접적 책임을 짐.
- 개발협력 관련 예산은 'Vote ODA' 라는 항목으로 별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총 ODA의 90%를 차지하며 NZAID가 관리함.
- NZAID는 단순한 원조 집행기관 이상의 역할을 하

고 있음. 준독립기관으로서 ODA 관련 정책 및 운영 사항에 대해 장관회의에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며 외교통상부의 견해와 다른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국회의 감독은 연간 예산 승인 절차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발정책 입안에 정도에만 관여하는 등 NZAID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여지는 제한적임.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의 창설과

뉴질랜드 ODA 정책의 변화

- NZAID의 창설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개발정책 및 관련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기관을 가지게 됨.
- 빈곤 근절(Poverty Elimination)이 NZAID의 중심 목표로 설정되어 우선순위 선정, 원조방법 선정, 원조시설 등 의 기간이 됨.
- 새로운 일련의 정책, 원조체계, 결과중심의 계획 및 실행 문화 등을 창조함.
- 수원국의 정책 및 행정기관이 취약하더라도 최신 프로그램의 전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원조 및 적절한 의사결정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게 됨.
- 고등교육보다 기초교육에 강조를 둠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의 변화를 이룸.
- 결과 중심주의로의 원조정책 전환. 이러한 관행은 수원국 및 국제기관과 보다 대규모의(Bigger), 보다 소수의(Fewer), 보다 깊은(Deeper), 보다 장기간의(Longer) 관계를 형성케 함.

2) NZAID와 MFAT(외교통상부)의 관계

- NZAID 청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하나 그 외 임직원의 인사권은 청장에게 있음. NZAID는 외교통상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두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는 Letter of Expectation과 Relationship document임. NZAID 청장은 외교통상부 Senior Management Group의 임원으로 매주 외교통상부장관과 회의를 하며 두 기관의 실무자들도 정규 및 비정규 모임을 가짐.

3) NGO와 밀접한 협력체제 구축

- NZAID는 NGO의 개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양한 채널을 통해 NGO와 개발정책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제는 양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총 ODA의 약 14%가 NGO에 지원되고 있으나 NGO들은 전적으로 정부지원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음. 대표 NGO 협의체인 CID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총 NGO 예산 중 68%는 공공모금을 통한 것이며 정부 지원분은 27%에 지나지 않음. NGO의 기금마련의 창구가 다양하므로 투명성과 일관성이 주요 이슈로 고려되고 있음. 아울러 NZAID와 NGO 간 수원국 선정 및 활동과 전략에 관한 조정을 위해 상호 협의가 중요시되고 있음.

2. 조직 운영 및 인적 관리

1) 경영의 유연성

- 당초 외교부 담당이었던 원조 사업을 NZAID에 이

관하여 임직원의 인사권 및 임금 결정권을 청장에게 위임하고 독립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비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 타 국가들보다 효율적인 원조가 가능케 됨.

- 직원의 70%를 신규 채용하고 분명한 전략적 집중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원조사업 관련 인력의 질적 향상을 이룩함. NGO, 학계, 민간 및 타 원조기관(영국국제개발부/DFID,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캐나다국제개발청/CIDA)의 인력을 고용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있음.

2) 왕성한 학습 문화

- NZAID 설립 당시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수행과 함께 신입직원들을 조직에 통합하는 것이었음.
- 이에 대안으로 신입직원에게 대한 학습 권장과 경력 개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훈련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함.
- NZAID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가 규정되어 실제 경영상 관행이 되었음.
 - “참여적인 의사결정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된 결과중심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개방적이고 신속히 반응하며 팀에 기초한 운영을 도모 한다.”
- 직원의 경력개발과 동기부여를 위해 학습과 개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직무 고안이 이루어짐.

3) 제한적 해외 현장 경험

- 현재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은 5명(피지, 인도네시

〈NZAID 해외 인력 현황〉

구분	정규직 환산인원 (실제인원x노동비율)	실제 인원 (노동비율)
NZAID	5.00	5(100%)
MFAT	13.13	88(14.9%)
현지고용전문인력	19.69	33(59.7%)
현지고용인력(기타)	20.94	137(15.3%)
총계	58.76	263

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및 태국)이며 5명의 추가 인원이 파견될 예정임(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 베트남 등). 원칙적으로는 Wellington의 본부 인력이 원조사업을 수행하나 상기와 같이 일부 수원국에서는 사무소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여 개발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음.

- 신규직원에게 더 많은 해외사무소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직업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뉴질랜드의 비교적 작은 ODA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직원을 해외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은 아니나,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인력이 본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원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NZAID는 이러한 문제를 Interesting team approach를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음.

※ Interesting team approach : 본부의 국장, 담당 부장, 외교통상부 대표 및 현지 파견 조정관이 정기 회의를 통해 현지 현황 파악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

3. 결과 중심주의 : 평가 및 기타 책임 설정

- 1) 기관 수행 평가

- 결과 중심주의 평가 및 경영시스템은 뉴질랜드 관료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는 전략목표 설정 및 실적보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NZAID는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동 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표 설정, 우선순위 선정 및 핵심전략 수립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
- 외교통상부는 국회에 대한 예산보고서, NZAID의 연례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NZAID는 자체보고서를 별도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감사원의 재무감사를 받으며 특별 회계감사가 시행될 수도 있음.

2) 자체평가의 강조

- 2001년 내각회의에서 뉴질랜드 원조의 효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채택되었음. NZAID는 DAC의 개발원조평가원칙(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근간으로 내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 동 평가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함.
 - 프로그램 사이클과 평가의 통합, 사업수행시 고려사항, 컨설턴트의 선정과 감독, 품질 관리, 보고서 양식, 새로운 사항의 활용 및 배포, 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 평가시 수원국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있으나 타 공여국과의 공동평가는 기관 내부의 역량부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V. 2005년 DAC 동료평가 주요 결과

□ 원조정책 및 對국민 인식

- NZAID 설립 초기에 개발된 정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의된 새로운 정책 및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수원국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하고 구체적인 국가별 제도 개혁 및 정책 개혁 장려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對국민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기관의 활동, 개발 이슈 및 성과에 관한 對국민 이해를 제고하여야 함.

□ 원조 규모 및 배분

- UN이 권고하고 있는 GNI 대비 ODA 비율을 0.7%로 확대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현실적이고 의욕적인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NZAID는 ODA 증액의 상당부분을 국제기구에 할애하여 다자간 개발기구에 대한 기여도와 발언권을 높여야 함.
- 원조실적이 가장 뛰어난 태평양지역에 대한 현행 지원 추세를 유지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선별된 소수의 국가에 양자원조를 집중시켜야 함.

□ 정책일관성

- NZAID는 정책조언 권한을 가진 개발원조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뉴질랜드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개발정책일관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이에 정부의 의제에 주도적 영

향력을 발휘하고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함.

- 개발정책일관성 관련, 부처간 원활한 조정을 위해 정부의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며,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목표와 정책일관성에 관한 정기 보고를 통해 업무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원조관리 및 실행

- 원조사업을 분야별 접근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아울러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 및 조정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현지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수를 늘려야 하며 직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국가 주도의 대규모 양자간 국별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마련창구, 지역 프로그램 육성, NGO와 공동 기금마련 등을 검토하고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